



IBK기업은행

英 Euromoney 주관 2025 Excellence Awards 수상

2025 대한민국 최우수 ESG은행 · 디지털은행



DECEMBER 2025 Vol.249

CEO REPORT



MONTHLY CEO

ESG 화학물질 및 안전환경보건 전문기업
(주)킴토피아 박상희 대표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DECEMBER 2025 Vol.249



CEO Report 웹진

발행일 2025년 12월 10일 통권 249호
 등록번호 서울중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서경란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461
 기획 IBK경제연구소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SPECIAL REPORT

- 02 **THEME**
리쇼어링
- 04 **SPECIAL ①**
국내 유턴 기업들
작고 생산성 낮아
지원책 재설계 필요
- 08 **SPECIAL ②**
우방국에 공급망 분산
'프렌드쇼어링' 전략
국내 中企도 참고할 만
- 12 **TABLE TALK**
“中企는 디지털화 통해 생산비 낮추고
정부는 '초기 현금+장기 공제' 지원을”



08



18

ECONOMY

- 18 **MONTHLY CEO**
ESG 화학물질 및 안전환경보건 전문기업
(주)캠토피아 박상희 대표
- 24 **START-UP**
(주)더마레, (주)아이클로, 에스엠해썬,
시안솔루션, (주)트리오어, (주)에이투어스
- 28 **MARKETING**
'디지털 셀럽'의 시대
브랜드들도 협업 나섰다
- 32 **TAX**
세무 리스크 없이
R&D 혜택 극대화하기
- 34 **IBK EXPLORING**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
전국 창업 지원 허브 강화
- 36 **GLOBAL ECONOMY**
지금 세계는:
- 38 **INDUSTRY TREND**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CULTURE

- 40 **LAW**
탄력근무제 도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42 **MOVIE**
영화 <탑건: 매버릭>
하늘을 나는 리더의 길:
최고를 향해 도약하다
- 44 **ESSAY**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운명
- 46 **WORK OUT**
굳은 몸 풀고 하루 준비하는
모닝 워업
- 48 **IBK SUPPORT**
성장통 극복 컨설팅



34

리쇼어링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커지면서 '리쇼어링(Reshoring)'이 주요국 정책 기조로 부상했다. 리쇼어링의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현황을 살펴보고, 도심형 제조업의 가능성과 제약, 스마트팩토리, 중소기업을 위한 시사점까지 짚어본다.

- 02 THEME
리쇼어링
- 04 SPECIAL ①
국내 유턴 기업들
작고 생산성 낮아
지원책 재설계 필요
- 08 SPECIAL ②
우방국에 공급망 분산
'프렌드쇼어링' 전략
국내 중소기업도 참고할 만
- 12 TABLE TALK
“중企는 디지털화 통해 생산비 낮추고
정부는 '초기 현금+장기 공제' 지원을”

RESHORING

글. 정성훈

Profile. 정성훈

- 한국개발연구원 공급망연구팀장
- 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국내 유턴 기업들 작고 생산성 낮아 지원책 재설계 필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리쇼어링(Reshoring)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실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으며 고용 창출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이 공급망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정책을 설계해야 할지 살핀다.

오프쇼어링의 그늘과 리쇼어링의 부상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세계 경제는 초세계화로 불릴 만큼 빠르게 통합됐다. 중국·멕시코·동유럽 등 신흥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선진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확장됐고 이 과정에서 오프쇼어링이 가속화됐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해외 이전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가 커지며 리쇼어링이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특히 한국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미·중 갈등, 코로나19, 요소수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충격이 이어지며 리쇼어링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제정해 유턴기업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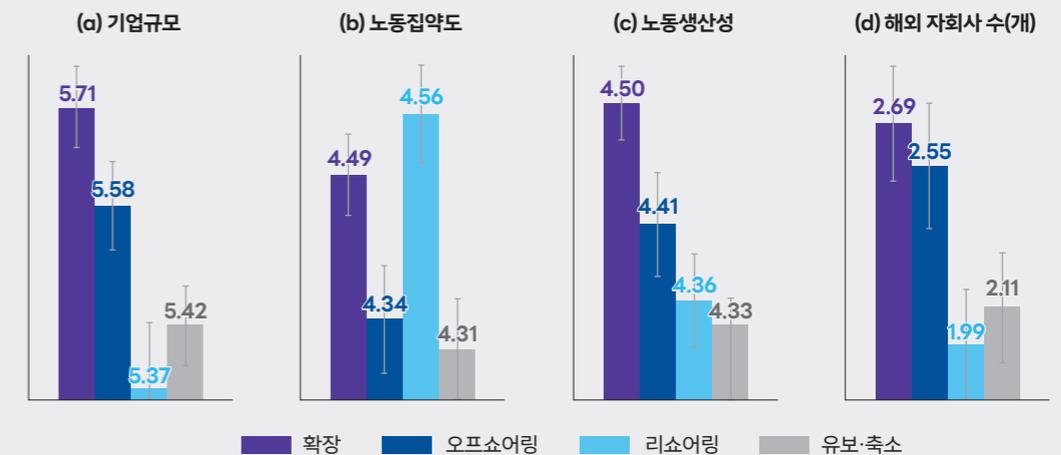
경우 해외 생산 축소 요건을 완화했지만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를 늘린 기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0년 넘게 지원 범위와 혜택을 확대해왔음에도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혜로 돌아온 기업들, 경쟁력은 어디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첨단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핵심은 ‘미국 기업의 복귀’가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라는 점이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 간접적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하며 일본·대만도 특정 산업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복귀를 지원했을 뿐 기본 기조는 국내 투자 확대에 맞춰져 있

투자 유형별 기업 특성

단위 %



주: 각 생산활동의 증가율은 투자가 이뤄지기 직전 기간(t-1, t=0, 1, 2) 기준의 평균치임. 기업규모=log(상용 종사자 수), 노동집약도=log(상용 종사자 수/실질유형자산), 노동생산성=log(종사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

자료 「기업활동조사」 기반 정성훈 계산

다. 즉 해외 주요국은 기업 국적보다 육성할 산업과 생산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반면 한국은 리쇼어링만을 위한 별도 법과 보조금 제도를 마련한 유일한 국가다. 그렇다면 국내로 실제 복귀한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1~2019년 국내 다국적 제조기업 1,200개의 투자 방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비교했다: 국내·해외 모두 투자하는 ‘확장형’, 해외 위주의 ‘오프쇼어링’, 국내만 투자하는 ‘리쇼어링’, 전반적 투자 유보형이다. 분석 결과, 리쇼어링 기업은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으며, 노동집약적 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도 활발하지 않아 해외 자회사 수가 적고 지역도 중국·동남아에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투자 철수 역시 비교적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도 밝지 않다. 리쇼어링 기업 중 약 70%가 이후 해외 투자를 늘리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일부는 투자 자체를 줄였다. 해외 생산 활동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리쇼어링 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자리 목표라면 정책 방향 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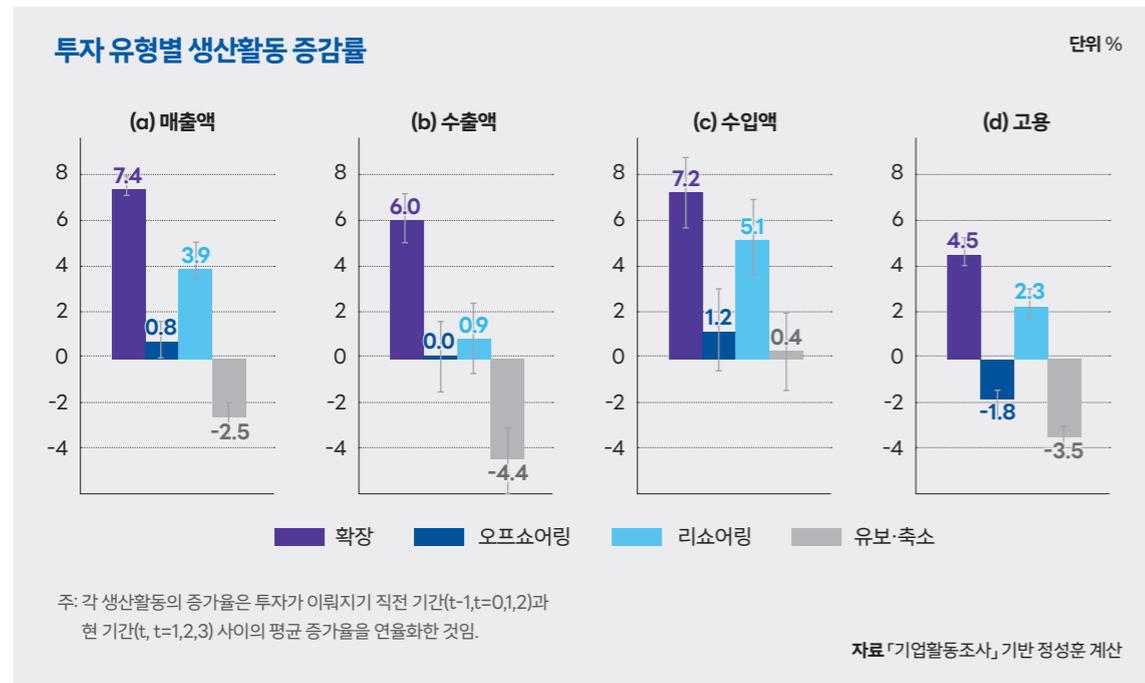
리쇼어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실제로 리쇼어링 기업들의 고용은 연평균 약 2.3% 증가했다. 국내에 투자하면 당연히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므로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확장형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4.5%로 더 높았고, 반대로 오프쇼어링 기업은 고용이 1.8% 감소했다.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 리쇼어링 기업들의 투자 10억 원당 고용 증가는 1.17명으로 계산됐다. 이는 확장형 기업의 1.32명보다 낮다. 더 놀라운 것은 해외 사업장이 전혀 없

지만 규모는 유사한 순수 국내 기업과의 비교 결과다. 이들은 리쇼어링 기업의 2배가 넘는 투자 10억 원당 2.48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만약 정부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면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순수 국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리쇼어링 기업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 같은 규모로 국내 투자를 해도 해외에서 철수해서 돌아온 기업이면 혜택을 받고, 원래부터 국내에만 있던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국내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기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기업들로 하여금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만들까? 기업 내부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다. 먼저 기업 내부 특성을 보면 생산성이 높고 규모가 크며 R&D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일수록 국내외 모두에 투자하는 확장형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대로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리쇼어링 기업들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정책의 초점을 ‘유턴’에서 ‘투자’로

지금까지의 분석은 유턴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책은 대기업들이 해외공장을 철수하고 국내로 돌아와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리쇼어링을 선택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고용 창출 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같은 금액을

투자할 때 순수 국내 기업이 리쇼어링 기업보다 두 배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촉진을 명분으로 현 정책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해외 진출 기업의 ‘귀환’에 한정해 추진할 필요는 없다.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기업은 해외사업이 부진해서 철수를 고민하던 기업일 것이다. 이런 기업들에만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국내 생산 기반 강화라는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까?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경쟁력 있고 국내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가 활발한 확장형 기업들이다. 이들은 규모도 크고 생산성도 높으며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정부가 진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아닐까? 결론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표는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 전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노동비용이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문제의 초점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아니라 ‘국내 생산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 형식적인 유턴 요건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국내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되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까지 제한하려 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내에 든든한 기반을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글. 류주한

우방국에 공급망 분산 '프렌드쇼어링' 전략 국내 中企도 참고할 만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을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핵심 제조업과 기술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앞다퉀 '리쇼어링(Reshoring)'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내 생산을 회생시키고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며 이에 대응해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Profile. 류주한
-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장

탈중국·동맹 강화... 재편되는 세계 공급망 지도

세계 각국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공격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앞세워 제조업 귀환을 장려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통해 국내 투자 시 투자액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파격적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을 발의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자국 제조업 복원을 위한 고율 관세, 규제 완화를 결합한 '초강력 리쇼어링 드라이브'를 추진하며 중국 의존도 축소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EU 역시 전략산업의 역내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산업전략 2030'을 발표해 GDP에 제조업 비중 25% 달성을 목표로 스마트팩토리 등 혁신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도 핵심 기술의 자국 내 생산 유치를 위한 공동 펀드 조성 및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급망 안전보장을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생산 거점을 타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에 의존하던 부품 생산 라인을 일본 국내로 복귀시키거나 아세안 등 제3국으로 이전을 독려하며

해당 중소기업에는 비용의 3분의 2, 대기업에는 2분의 1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책을 펴고 있다. 반면 중국은 탈(脫)중국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동시에 자국 내 생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및 자체 공급망 강화 정책을 내세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정책 경쟁 속에 탄생한 개념이 바로 '프렌드쇼어링'이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전 미국 재무장관은 프렌드쇼어링을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국가에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을 달성하는 전략'으로 정의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24년 행정명령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백악관 공급망 회의를 공식화했고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공급망 전략의 축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 경제 노선을 더욱 노골화해 '자국 우선' 공급망 전략을 심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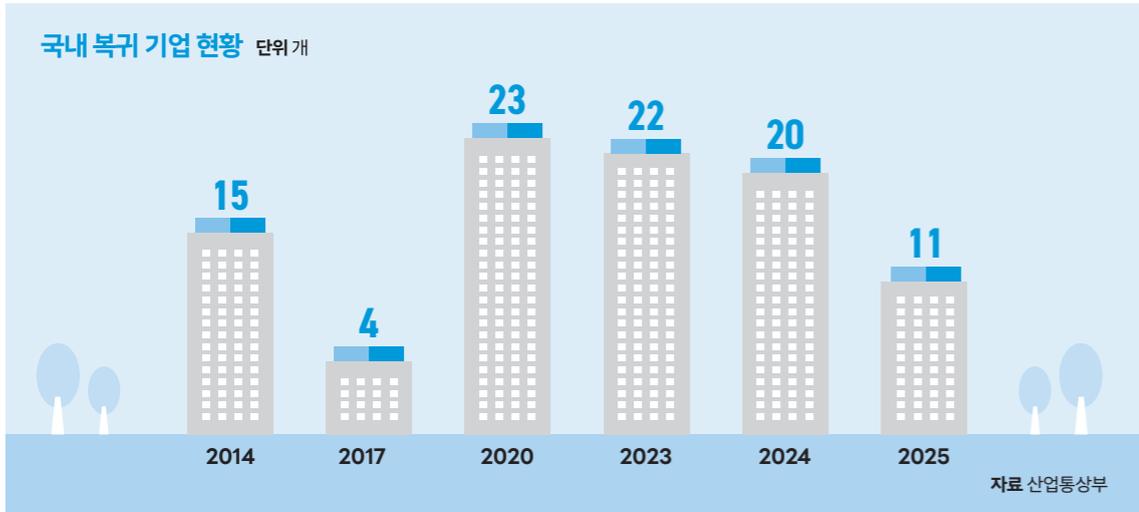
공급망 재편,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는 2022년부터 미시간주에 약 66억 달러(약 8조 원)를 투입해 전기차 생산 시설 증설과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

주요국 리쇼어링 정책 비교

구분	주요 정책	핵심 지원 내용	산업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세액공제(최대 25%), 대규모 보조금	반도체·배터리·첨단 제조
EU	국가산업전략 2030, 혁신펀드	스마트팩토리 지원, 규제 완화	제조업 전반
일본	공급망 안전보장 프로그램	중국 의존 부품 공정 리쇼어링 지원	부품·소재
중국	생산 자립도 강화 정책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공급망 강화	제조업 전반

자료 류주한



고 있다. 이 투자로 건설된 GM-LG의 합작 배터리 공장(얼티움 셀즈)은 2025년 10월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등 2곳에 가동 중이고 미시간주에 1개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인텔(Intel) 역시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 2개 착공을 시작으로 미국 내 생산 거점을 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도체법에 따른 세액공제로 최대 80억 달러의 혜택이 가능하며 2026년 하반기에 첫 생산이 가능해 보인다. 유럽 기업들도 생산기지 본국 복귀(유턴) 사례를 만들고 있다. 독일의 지멘스(Siemens)는 2018년 풍력터빈 회전자 및 발전기 하우징 공장을 덴마크에서 독일 북부 쿡스하펜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약 1,000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자동화 생산이 가능해졌다. 프랑스의 차(茶) 제조업체 쿠스미티(Kusmi Tea)는 자동화 생산 라인을 확충해 중국과 모로코에 있던 생산 시설을 프랑스 노르망디로 복귀시켰으며 물류비 절감, 품질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로봇 자동화에 의한 리쇼어링이 늘고 있다. 캐논(Canon)은 조립 라인 인력을 20~30명에서

4~5명으로 줄이는 전면 자동화 공정을 구현하며 중국 카메라 공장의 상당 부분을 일본 오이타현으로 옮겼다. 우리 기업들도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분야에서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통한 미국 등 우방 시장 투자가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4,958㎡(약 150만 평) 부지의 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2026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완공 시 기존 오스틴 공장의 4배 규모로서 다수의 한국 소재·부품 협력업체도 함께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63억 달러(약 8조2,000억 원)를 투자해 2025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2024년 4분기에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서의 초기 생산을 시작했고 인근에 건설 중인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 움직임은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 협력사들에게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편입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로의 생산 복귀 사례는 지난 10년간 150개

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은 1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인건비 상승, 수도권 투자 제한 등 국내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돌아올 필요도, 돌아올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의 리쇼어링에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많음을 시사한다.

리쇼어링 전쟁 속,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

글로벌 리쇼어링 경쟁 속에서 중소기업 역시 생존과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대기업의 생산 이전은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 협력사에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을 요구하며 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력 고객사가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면 중소 협력업체도 현지 생산법인 설립이나 파트너십 체결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처럼 생산 및 조달처 다변화로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지정학적 긴장에 대비한 재고 비축 및 대체 공급선 확보 계획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다만 지나친 본국 회귀는 비용 증가와 시장 축소 위험을 수반하므로 프렌드쇼어링을 통한 균형 잡힌 글로벌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완전한 본국 복귀가 어려운 공정은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우방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안정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정부와 대기업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기회가 열릴지에 대한 전략적 통찰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을 돕기 위해 관세 면제, 보조금 지급, 부지 알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는 KOTRA 등이 현지 정보 제공, 법률 컨설팅, 파



주요국의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물류망과 시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너 매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프렌드쇼어링 관련, 미국·EU 등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펀드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 등 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투자를 통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상쇄하고 ESG 경영과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해 우방국 조달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도 견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은 만큼 민첩성과 유연성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애자일(Agile) 경영이 필요한 때다. 리쇼어링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다. 한편으로는 전통적 저비용 글로벌 조달 모델이 흔들리면서 비용 상승과 시장 재편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 진입과 국내 산업기반 강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中企는 디지털화 통해 생산비 낮추고 정부는 ‘초기 현금+장기 공제’ 지원을”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리쇼어링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유럽·일본이 대규모 인센티브를 통해 자국 복귀를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한국형 리쇼어링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속에서 확보해야 할 전략적 지점을 논의했다.



황용식 진행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추동훈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동향분석실장·수석연구원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좌담 내용은 좌장 및 패널의 개인 의견이며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국내의 유턴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법안) 도입 이후에도 기업 복귀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오준석 정부는 유턴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리쇼어링 관련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유턴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기업 환경은 여전히 리쇼어링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다. 기업이 과거 해외로 이전했던 원인인 높은 인건비, 경직된 노동시장, 노조 갈등, 다양한 규제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행정 절차와 규제가 국제 기준과 괴리된 ‘갈라파고스 규제’로 운영되는 점도 리쇼어링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민경기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목적 자체가 리쇼어링을 어렵게 한다. 국내 기업은 해외 시장 확보나 저렴한 인건비, 특정 자원 활용을 위해 해외로 나간 경우가 많아 높은 인건비와 제한된 자원을 가진 국내로의 복귀 결정이 쉽지 않다.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만으로는 복귀 후 지속 비용을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존재한다. 둘째, 유턴 인센티브의 규모가 경쟁국 대비 부족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반도체·전기차 등 전략 산업에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한 것과 달리 국내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대기업의 본격적인 복귀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동훈 한국은 인건비·전기요금·부지 비용이 높고 노동 규제·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게다가 지원은 많지만 효과는 약하고 절차는 번거로워 기업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 미국·일본처럼 큰 인센티브를 한 번에 주는 구조도 아니다. 기업 전략 자체가

“
국내 기업 환경은 여전히 리쇼어링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다. 기업이 과거 해외로 이전했던 원인인 높은 인건비, 경직된 노동시장, 노조 갈등, 다양한 규제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



리쇼어링보다는 생산기지 다변화를 택해 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년간 많은 기업이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멕시코·인도 등으로 확장하는 ‘차이나+1’ 전략을 선호했다. 한국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해외 확장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이다.

현행 ‘유턴기업 지원법’과 관련 제도에서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판단되는가.

오준석 유턴기업 지원제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요구는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배제 문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부분 유턴 기업의 경우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고 세제 감면, 보조금 수준도 실제 투자 비용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한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기업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지원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된 점 역시 수도권 기반 기업의 유턴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선뿐 아니라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제도 환경의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민경기 개별 기업 단위 지원에서 공급망·클러스터 단위의 생태계 통합형 구조적 지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와 동반 유턴 또는 동반 국내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공급망 동반 복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물류망과 판매망 등을 포함하는 클러스터 단위의 구조적인 복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추동훈 현재 유턴법은 인센티브의 효과가 작고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기업들이 전략산업·고용창출·투자 규모 등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보조금·금융·입지를 패키지로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일본은 이러한 방식으로 리쇼어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또한 유턴 인정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해외 생산을 대폭 축소해야만 국내 복귀로 인정되는 현행 기준으로는 부분 리쇼어링이나 국내 신규 투자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글로벌 기업들은 전체 라인을 한 번에 이동하기보다 일부 라인만 옮기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도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국내 복귀 기업 다수가 소

규모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세제 감면보다 기술 개발, 공정 혁신, 생산 자동화와 같은 실질적 경쟁력 강화 지원이 더 절실하다. ‘유턴+스마트팩토리’ 방식의 패키지 설계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기술력 부족, 인력난, 입지 제약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이 리쇼어링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강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오준석 리쇼어링은 단순히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이 해외로 나갔던 핵심 요인인 생산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실질적 성과

“
기업들이 전략산업·고용창출·투자 규모 등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보조금·금융·입지를 패키지로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디지털경제 전환 흐름에 맞춰 제조업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디지털 공급망을 적극 도입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하고 중소기업 역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생산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기반 위에 로봇기술과 자동화를 강화한다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리쇼어링을 비용 부담이 아닌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민경기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중소 제조업의 기술·인력·입지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 측면에서는 자동화·디지털 전환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인력 측면에서는 기존 인력을 디지털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극 유입해야 한다. 입지 측면에서는 개별 공장 체제를 넘어 공동 인프라와 협력 네트워크를 갖춘 집적형 산업단지로 이동해 비용과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추동훈 국내 중소 제조업이 국내 복귀를 계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앞서서도 꾸준히 언급되는 것과 같이 기술력과 자동화를 꺾을 수 있다. 이 외에 글로벌 네트워크도 중요한 요소이다. 글로벌 고객과 직접 연결되는 공급망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 리쇼어링은 가치사슬에서 새로운 자리 잡기 과정이기 때문에 대기업 수준의 품질·납기·ESG 기준을 충족하는 역량을 갖춰야 공급망에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소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해야 할 핵심 인센티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오준석 리쇼어링 인센티브는 세제·재정·행정지원으로 나눠 보되 지역경제의 중요소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핵심으로 국내 복귀 후 7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되며 일부는 투자세액공제로도 지원된다. 재정지원은 투자 규모와 고용 효과, 첨단업종 여부 등에 따라 기업당 최대 600억 원까지 제공될 수 있다. 행정지원은 이전 비용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며 복귀 기업의 채용·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되고 있다.

민경기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생산성 혁신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조건·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 등 생산성 향상 투자를 폭넓게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국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사회보험료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또 공장 이전과 설비 구축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저금리 정책금융으로 지원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고용·투자·생산성 등 목표 달성 시점에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기업의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추동훈 기업 복귀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가 ‘많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지점’을 찌르는 구조여야 한다. 초기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 줄 현금성 지원과 장기 세액공제를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정 수준의 고용 유지, 투자, 수출 성과를 조건으로 5~10년에 걸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또한 리쇼어링과 함께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디지털화하는 기업에는 보조율을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기업일수록 장기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고려하면 성과를 모

두 확인한 뒤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성과에 따라 나머지를 정산하는 ‘선지원·후검증’ 구조가 현실적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전략적 지점은 무엇인가.

오준석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국내에서 내재화해 공급망 불안에 민감한 기업들에 안정적인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자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세부 영역을 찾아 틈새시장에 특화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이 지역 단위로 재편되는 흐름에 맞춰 특정 지역의 고유한 수요를 충족하거나 인근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인근 조달 전략의 실행 주체로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민경기 GVC가 분산·탄력형 구조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무기로 새로운 틈새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이 안정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은 고난도 소부장과 맞춤형 정밀 장비 등 대기업이 직접 다루기 어려운 영역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글로벌 기업에 안정적인 대안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SG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재활용·순환경제 기술 확보와 친환경 인증을 통해 ‘그린 서플라이어’로 신뢰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소기업의 전략적 가치와 협력 기회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ESG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재활용·순환경제 기술 확보와 친환경 인증을 통해 ‘그린 서플라이어’로 신뢰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소기업의 전략적 가치와 협력 기회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추동훈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미세 공정이나 특수 소재·부품 분야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좋은 영역이며 프렌드쇼어링 클러스터의 최상위 공급망 진입은 어렵더라도 하위 단계서브 공급망에서는 기회가 많다. 다만 이를 위해 국제 품질·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아울러 제조와 서비스를 결합한 ‘Manufacturing-as-a-Service’ 모델이 확산되면서 설계부터 시제품, 소량 생산, 사후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제조 역량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ESG 화학물질 및 안전환경보건
전문기업 (주)캠토피아

ESG 시대, 규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ESG와 안전·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대,
(주)캠토피아는 컨설팅과 데이터,
IT로 기업의 대응 방식을 바꾸고 있다.
복잡한 규제를 관리 가능한 체계로 바꾸는 힘,
그 중심에 박상희 대표가 있다.

(주)캠토피아 박상희 대표



급변하는 환경 규제 속, 데이터로 해법 제시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발 환경 규제가 연이어 시행되며 국내 산업계 역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가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견 및 중소기업 대부분은 전문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복잡한 규제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처럼 복합적 변화 속에서 ‘EHS·ESG 대응을 위한 전문 솔루션’을 표방하며 등장한 기업이 바로 (주)캠토피아다.

2002년 설립된 (주)캠토피아는 화학물질 및 안전보건환경 규제 대응을 컨설팅 기반으로 지원해온 전문 기업이다. 박상희 대표는 국립환경과학원 신규물질 등록평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기업 현장에서의 법규 이행 어려움을 직접 목격했다. 박상희 대표는 ‘전문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부재가 더 큰 문제’임을 깨닫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법규 관리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 ‘화학물질 규제 대응’이라는 개념조차 낯설던 시기였지만 박상희 대표는 업종 단체 홈페이지에 유료 배너 광고를 직접 제안하며 고객 접점을 넓혀갔다. 전화 상담은 폭주했으며 이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주)캠토피아는 설립 초기부터 ‘데이터베이스화’에 주목했다. 법령과 화학물질 정보를 수기로 찾아보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사용을 거쳐 외부 솔루션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오늘날 (주)캠토피아의 ICT 본부로 이어졌고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주)캠토피아의 사업 영역은 화학물질 규제에서 환경·안전·보건, 탄소중립까지 확장됐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현장의 특성상 화재·폭발·환경오염·직업병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며 탄소중립과 ESG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박상희 대표는 “ESG 지표의 60% 이상이 환경·안전·보건과 직결된다”라며 이 분야의 데이터 관리가 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66

이제는 데이터와 기술이 없으면
환경·안전·보건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예요.
전략적 혁신이 중요하죠.

99

현장에서 데이터로, 데이터에서 솔루션으로

(주)켄토피아의 경쟁력은 ‘컨설팅 기반·데이터 기반·IT 기반’이라는 삼박자에 있다. (주)켄토피아는 단순히 솔루션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다. 기업의 규제 대응 전 과정을 데이터로 구조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현장 데이터는 곧 (주)켄토피아의 핵심 자산이 된다. 법령 개정, 신규 화학물질 등록, 산업별 기준 변화 등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데이터 조직이 수집·정제하고 ICT 부서가 이를 솔루션에 반영한다. 이처럼 ‘컨설팅→데이터→솔루션’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순환 구조는 국내 EHS 시장에서 (주)켄토피아만이 구현한 독자적 모델이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주)켄토피아의 솔루션은 실제 현장과 가장 근접한 형태로 작동한다. 현장 실무자가 매일 다루는 리스크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기업 맞춤형 대시보드를 통해 법규 준수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주)켄토피아는 화학물질 등록·유일대리인(OR) 대응, 환경·안전·보건 통합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탄소중립 컨설팅 등 다각적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시장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표면처리조합 등 업종 단체를 통한 구독형 솔루션 보급 사업은 산업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돕는 자의 마음으로 설계하는 산업의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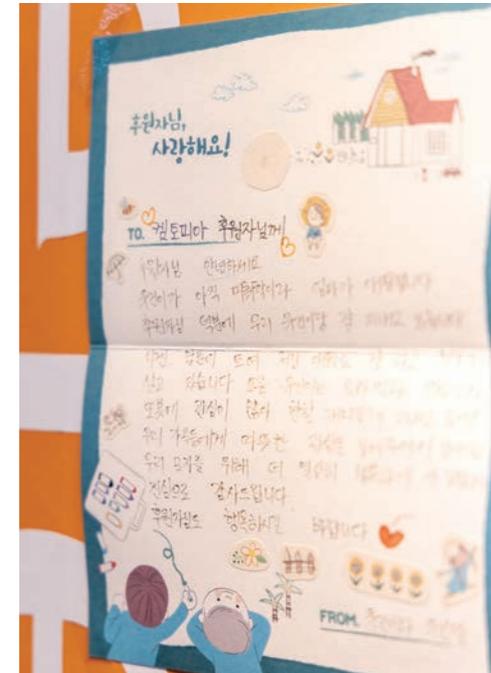
박상희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20년 넘게 ‘규제 대응’이라는 어려운 분야를 개척해왔다. 박상희 대표에게 위기는 곧 성장의 계기였다. 변화의 흐름이 빠른 만큼 기술과 제도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리더십의 중심에 자리한다.

(주)캠토피아는 현재 AI·빅데이터·Io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EHS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다. 데이터를 ‘예측 가능한 경영자원’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 기술적 진화는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이었던 환경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형’으로 바꾸고 있다.

2026년 출시 예정인 클라우드 기반 EHS·ESG 구독형 플랫폼은 그 정점이다. 중견·중소기업이 서버나 전문 인력 없이도 글로벌 규제(ESRS, CBAM, DPP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주)캠토피아가 2만여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 중이다. 이 플랫폼은 향후 ESG 의무공시 확산과 함께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AI 실시간 통번역 안전 플랫폼이다. 국내 약 2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제조·건설업 현장에서 언어 장벽은 곧 안전 리스크로 이어진다. (주)캠토피아는 40개국 언어의 실시간 음성 통역과 80개국 언어 문서 번역 기능을 지원하는 AI 엔진을 도입해 다문화 현장에서도 안전 지침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혁신의 근간에는 박상희 대표의 철학이 있다. “전문가이자 돕는 자로서 고객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가치를 강조한다. 컨설팅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의 확장은 단순한 사업다각화가 아니라 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이다. AI와 데이터가 만드는 효율 위에 (주)캠토피아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의 미래를 쌓아가고 있다. 



START-UP

IBK 창공 육성기업

(주)더마레 • (주)아이클로 • 에스엠해썸 • 시안솔루션 • (주)트리오어 • (주)에이투어스

DERMARE

비건 PDRN으로 여는 더마 혁신

(주)더마레 한지성 대표

- ◎ 주요 기술 해조류·식물·미세조류 기반 PDRN 추출 기술
- ◎ 주요 제품 더마케어 세럼·크림, 스킨부스터 원료
- ◎ 홈페이지 www.dermare.co.kr

(주)더마레는 해양 생물 자원을 핵심 원료로 한 PDRN(Polydeoxyribonucleotide) 전문 기업으로 차세대 더마코스메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주)더마레는 해조류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과 미세조류로부터 PDRN을 추출해 고순도·저분자 구조로 정제함으로써 피부 흡수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주)더마레의 PDRN은 기존 동물성 PDRN의 알레르기·윤리적 한계를 해소한 비건 원료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친환경·지속가능성 기준에도 부합한다. (주)더마레는 독자적 정제기술을 기반으로 20종 이상의 맞춤형(Customizing) PDRN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해조류 교란종을 업사이클링하는 제로웨이스트(Zero-waste) 공정과 결합해 환경적 가치와 경제성을 동시에 실현했다. (주)더마레는 고순도 DNA 단편 혼합물 제조 특허를 기반으로 원료 생산을 자동화하고 피부 재생·

탄력·보습 개선 효과가 입증된 원료 'AIO Marine Plant PDRN'을 비롯해 크림·세럼 등 더마케어 제품을 상용화했다. (주)더마레는 고순도 PDRN의 가려움증 완화에 대한 임상 효능을 기반으로 제품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정부 R&D 사업 '딥테크 팁스'를 통해 의료소재화 연구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40여 개 화장품·의약외품 기업과의 공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부산을 거점으로 한 생산 인프라를 확장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방 치과 시대 여는 AI 구강진단 플랫폼

(주)아이클로 김준배 대표

- ◎ 주요 기술 AI 기반 구강질환 예측·진단 알고리즘, 환자-치과 간 데이터 연동 플랫폼
- ◎ 주요 제품 홈덴(HomeDen), AI 치과용 진단 소프트웨어
- ◎ 홈페이지 www.iclocorp.com

(주)아이클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구강 건강의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주)아이클

로의 대표 서비스 '홈덴(HomeDen)'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구강을 촬영하면 AI가 충치, 치석, 잇몸질환을 자동 분석해 질환의 초기 징후를 포착하고 인근 치과와 연결해 맞춤형 진료를 제안한다. 병원을 찾기 전 스스로 건강을 진단·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구강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정기 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홈덴의 누적 이용자는 40만 명을 돌파했으며 전국 700여 개 치과가 진료 데이터 연동을 통해 서비스에 참여 중이다. (주)아이클로는 축적된 AI 데이터를 분석해 치과 진료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별 맞춤 치료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AI 기반 예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해 장기적인 구강 건강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치과 진료 이력, 사진, 문진 데이터가 플랫폼 내에서 통합 관리돼 의료진의 진단 보조 도구로 활용된다. (주)아이클로는 앞으로 교정·치주 분야로 AI 진단 알고리즘을 확장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으로 한국형 ai 덴탈케어 기술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터 생산·품질검사·출하까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위생과 품질을 동시에 관리하며 머신비전과 딥러닝 기반 OCR 기술을 통해 작업자의 수기 입력 오류를 대폭 줄이고 검사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식품 산업 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HACCP 문서 작성, 라벨 검증, 공정 이상 분석 등 복잡한 행정·관리 업무를 자동화해 기업의 규제 대응과 운영 효율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에스엠해썸은 70여 개 식품 제조 고객사와 200건 이상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데이터 자산화와 예측형 품질관리 솔루션을 결합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나아가 2030년까지 1,000개 공장에 자율제조 시스템을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숙련자의 노하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현장 운영 표준화를 실현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라벨 플랫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로봇자동화 등 다양한 모듈을 통해 식품 제조 환경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화된 생산 라인을 구현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넘은 식품 자율제조 플랫폼

에스엠해썸 장성묵 대표

- ◎ 주요 기술 AI 머신비전 검사, 수기문서 OCR 자동 입력 에이전트, Food 특화 LLM 기반 AI 팩토리
- ◎ 주요 제품 식품 제조 특화 AX 플랫폼, AI 에이전트 품질 예측 솔루션
- ◎ 홈페이지 www.smhacccp.com

에스엠해썸은 '식품 제조 특화 AX 플랫폼'으로 업계를 혁신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원재료 입고

(주)더마레 한지성 대표 (주)아이클로 김준배 대표 에스엠해썸 장성묵 대표



▶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로 완성하는 정밀 수술 시대

seeann

시안솔루션 서안나 대표

- ◎ 주요 기술 3D 프린팅 + AI 기반 맞춤형 의료기기 설계 플랫폼
- ◎ 주요 제품 수술가이드(PSI), 맞춤형 임플란트, 의료 3D 디자인 SaaS
- ◎ 홈페이지 www.seeann.co.kr

시안솔루션은 3D 프린팅과 AI 기술을 융합한 맞춤형 의료기기 시스템으로 외과 수술의 정밀성과 예측성을 높이고 있는 메디컬 테크기업이다. 환자의 CT·MRI 영상을 3D 모델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수술 가이드(PSI)와 임플란트를 제작해 수술 정확도를 극대화했다. 표준화된 기구에 의존하던 기존 수술과 달리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해 절삭 위치·정렬 오차를 최소화하고 수술 시간과 합병증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인다. 자체 개발한 플랫폼 'Reconeasy'는 의료진과 엔지니어가 온라인에서 즉시 설계·검수·제작을 연동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End-to-End) 시스템으로 평균 3일 이내 수술 가이드를 공급한다. 의료진은 홈페이지에 DICOM·STL 파일을 업로드해 웹상에서 2D·3D 데이터를 보며 주석 작성,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고 수부 보조기 설계 등에는 반자동 알고리즘이 적용돼 설계 시간을 크게 줄였다. 시안솔루션은 턱 재건, 어깨 치환, 척추 고정 등 정형외과 및 치과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UAE 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안나 대표는 25년 이상의 의료 영상 및 3D 의료기기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시스템을 완성했다. 시안솔

루션은 현재 84건의 지식재산권과 14건의 의료기기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기반 자동설계 기술로 설계 리드타임을 70% 이상 단축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였다. 앞으로는 로봇 수술과 연동되는 차세대 스마트 수술 가이드로 발전시켜 '생각이 현실이 되는 의료기기'라는 비전 아래 환자 맞춤 정밀의료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갈 것이다. 향후에는 병원 워크플로우와의 통합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TRIOAR ADC 한계 넘는 차세대 치료 기술

(주)트리오어 우성호 대표

- ◎ 주요 기술 ADC, 고도화 플랫폼 'TROCAD™', 'TROSIG™'
- ◎ 주요 제품 TRO-01(CLND18.2-TROSIG™-Exatecan), TRO-02(TROCAD™-EGFR-TROSIG™-Exatecan)
- ◎ 홈페이지 www.trioar.co.kr

(주)트리오어는 항체-약물 복합체(ADC)의 효능과 안전성 한계를 동시에 극복한 차세대 항체 치료제 플랫폼 기업이다. (주)트리오어의 핵심 기술 TROCAD™(TriOar Conditionally Activatable Domain)과 TROSIG™(TriOar Self-Immolative Group)은 암세포 주변 미세환경(TME)에서만 선택적으로 활성화돼 약물의 독성을 줄이고 종양 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약효를 발휘한다. 특히 두 기술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플랫폼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준다. TROCAD™은 종양 부위에서 약물의 활성화 유도하면서 정상 세포에서는 결합력을 낮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TROSIG™은 혈중에서는 안

정적이면서 종양 내 리소좀 환경에서는 빠르게 약물을 방출하는 친수성 링커로 약물 전달 효율을 극대화한다. (주)트리오어는 CLDN18.2, EGFR을 표적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TRO-01과 TRO-02를 개발 중이며 비임상 독성시험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우수한 안전성이 입증됐다. 또한 항체-링커-페이로드를 유기적으로 최적화해 기존 ADC 치료제의 낮은 치료지수(TI)를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트리오어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아웃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저변 확대에도 속도를 내며 혁신적 플랫폼 기반 확장 전략을 통해 차세대 항암 신약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NUCUL 하이드록실 라디칼, 청정산업의 새로운 해답

(주)에이투어스 이승섭 대표

- ◎ 주요 기술 하이드록실 라디칼(·OH) 생성 기반 'Magic Electro Water(MEW)' 정전분무 기술
- ◎ 주요 제품 MEW 모듈·필름, 살균·탈취·정화 솔루션, 반도체 세정용 장치
- ◎ 홈페이지 www.a2us.co.kr

(주)에이투어스는 하이드록실 라디칼(·OH) 물을 이용해 공기와 물을 정화하는 친환경 청정 기술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물 정전분무(water electro-spray)로 ·OH 물을 대량 생성하는 기술을 구현했는데 반응성이 강한 ·OH 물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유해가스와 유기오염물을 제거하고, 세균과 곰팡이를 살균 억제한다. (주)에이투어스는 KAIST 교수인 이승섭 대표가 대학원생들과 설립

한 연구실 벤처기업으로 2025년 폴리머 물 정전분무 모듈 양산화와 그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2026년에 제품 출시 예정인 공기청정기는 기존 상용제품에 사용되는 HEPA 필터, 오존 혹은 UV 없이 나노 물방울만으로 초미세먼지, 냄새, 유해가스를 모두 제거할 수 있으며 상용제품의 성능을 월등히 앞선다. (주)에이투어스는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앞으로 가습기와 음식물 처리기 등 생활가전은 물론, 대용량 ·OH 물 생성장치를 기반으로 반도체 공정, 축산 악취 저감, 산업용 유해가스 처리, 스마트팜·아쿠아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폭넓은 응용이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실증 프로젝트 확대에도 적극 나서며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친환경 기술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 



시안솔루션 서안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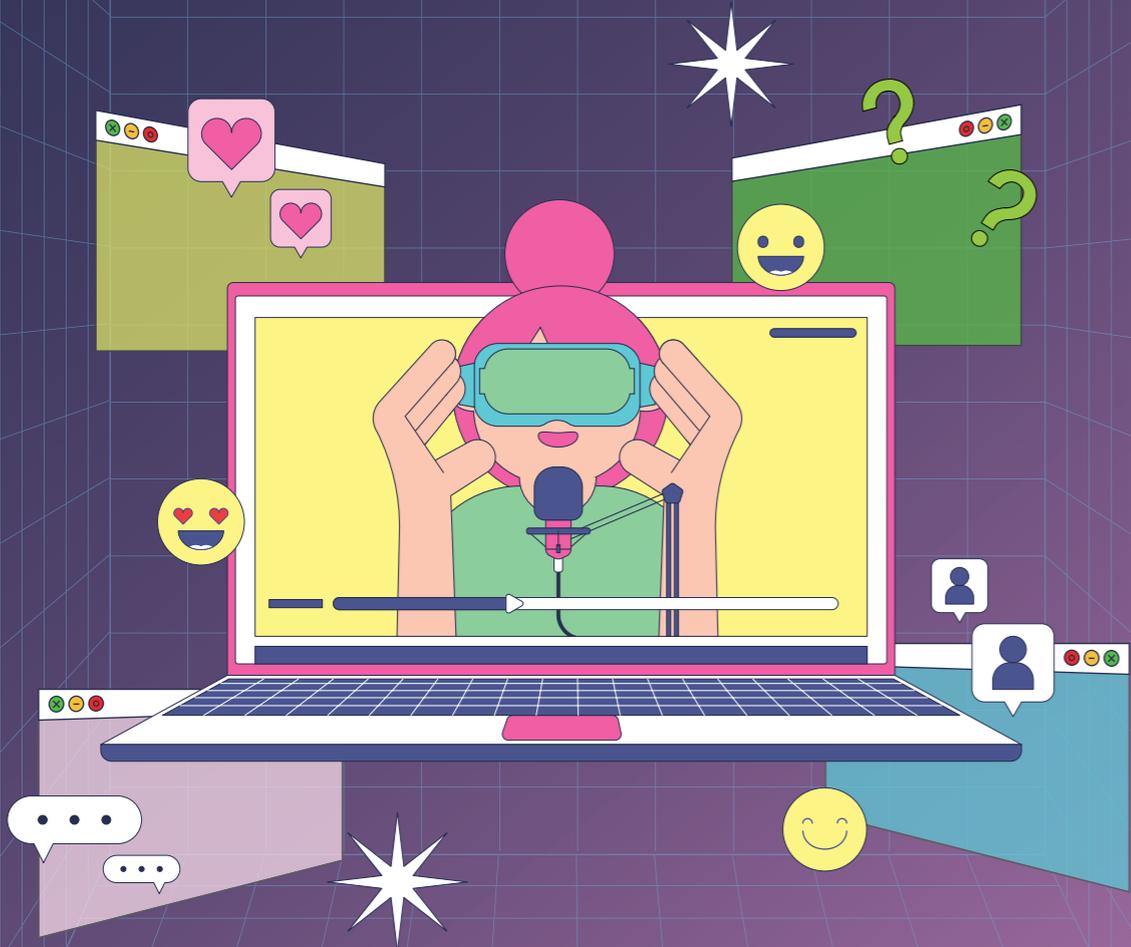
(주)트리오어 우성호 대표

(주)에이투어스 이승섭 대표

글. 정덕현

‘디지털 셀럽’의 시대 브랜드들도 협업 나섰다

버추얼 휴먼, 가상 캐릭터는 이제 가상의 차원을 넘어 현실로 들어오고 있다. 고도화된 기술력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수용이 맞물려 향후 마케팅의 차원을 바꿀 차세대 파트너로 등장했다.



Profile. 정덕현
- 대중문화 평론가
- <대중문화 트렌드 2018> 등

버추얼 휴먼, 디지털 셀럽의 탄생

최근 한국의 전통 한복 브랜드로 걸그룹 블랙핑크의 ‘코첼라’ 한복 의상을 제작했던 ‘오우르 by 금단제’가 한국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와 사계절 한복 화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계절 속에 담긴 전통 한복의 다양한 변주와 아름다움을 최신 AI 기술, 버추얼 콘텐츠 제작 기술과 결합해 만든 이 화보 프로젝트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비주얼을 선보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로지는 약 17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태국 끄라비의 홍보대사로 태국의 휴양지를 배경으로 한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인플루언서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셀럽’이라고 할 만하다.

2020년 8월 사이더스 스튜디오엑스가 처음 로

지를 국내 최초 소통 가능한 가상 인플루언서로 등장시켰을 때만 해도 과연 이 이질적인 존재가 이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미 90년대 말 사이버 가수 아담이 등장한 적이 있었지만 대중적 주목만큼 기술적 한계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전례가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실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진 버추얼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기술은 물론이고 이제 AI가 결합돼 실시간 소통 구현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니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그간 고전적인 아날로그 기반의 장인 정신을 전면에 내세우던 명품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들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9세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14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

디지털 휴먼 활용 분야

팔로우 좋아요

구분	활용 분야	핵심 콘텐츠	주요 사례	관련 업체
엔터테인먼트	가상 모델, 가수, 배우	음악, 영화 등 콘텐츠, 시각특수효과 기술	에스파	SM엔터테인먼트
			K/DA	텐센트
			한유아	스마일게이트
유통·금융·방송	AI 기반 챗봇의 상품 설명, 상담 등	비주얼 어시스턴트, 가상 상담원, 버추얼 쇼호스트	루시	롯데홈쇼핑
			아멜리아	IP소프트
교육·훈련	온라인 강의	강사의 동작을 재현	네온	삼성
			유니크	유니크
헬스케어	재활의학, 운동 코칭	전문 트레이너의 움직임을 재현	Codelane 모션 캡처	Codelane

한 릴 미켈라(Lil Miquela)는 프라다, 발렌시아가, 샤넬 등 최고급 패션 브랜드와 협업했고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글로벌 광고에도 참여했다. 로지 역시 샤넬, 티파니앤코 등 명품 브랜드와 협업했고 신한라이프와의 파트너십 캠페인에서 '라이프에 놀라움을 더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등장해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넘기며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 모았다. 명품 브랜드들은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미래적인 이미지를 더해 고전적인 자신들의 브랜드에 '힙한' 이미지를 부여하려 한다. 그것이 현재의 MZ세대들과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익숙해진 가상과의 소통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부상은 이를 실제처럼 느끼게 해주는 기술적인 성취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이들 가상의 셀럽을 받아들이는

현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달라진 감수성이다. 태생적으로 디지털을 접하며 자라온 이들은 가상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인다. 국내에서 막강한 팬덤을 이끌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나 이세계아이들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마치 만화 같은 2D 캐릭터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이들에게 실제처럼 과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때때로 기술적 결함에 의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영상의 버퍼링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농담'으로 넘어갈 정도로 이들의 몰입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그 세계관 안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아닌가다.

차갑게만 느껴지는 디지털 세계 또한 이들에게는 쿨하고 힙한 세계로 여겨진다. 등장부터 가상의 아바타 개념을 덧붙여 독특한 버추얼 세계관을

갖고 시작한 에스파는 디지털적인 이미지와 음악으로 이른바 '쇠맛'에 열광하는 팬덤을 낳았다.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의 모습은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쿨한 캐릭터들로 자리매김했다. 기성세대들에게 이질감과 차가움으로 다가오는 디지털의 세계가 현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즉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성장은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이를 수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달라진 가상에 대한 감수성과 소통의 욕망이 더해진 결과다. 디지털의 특징인 '소통'과 '연결'을 더욱 재미있게 실제처럼 몰입하며 하고픈 욕망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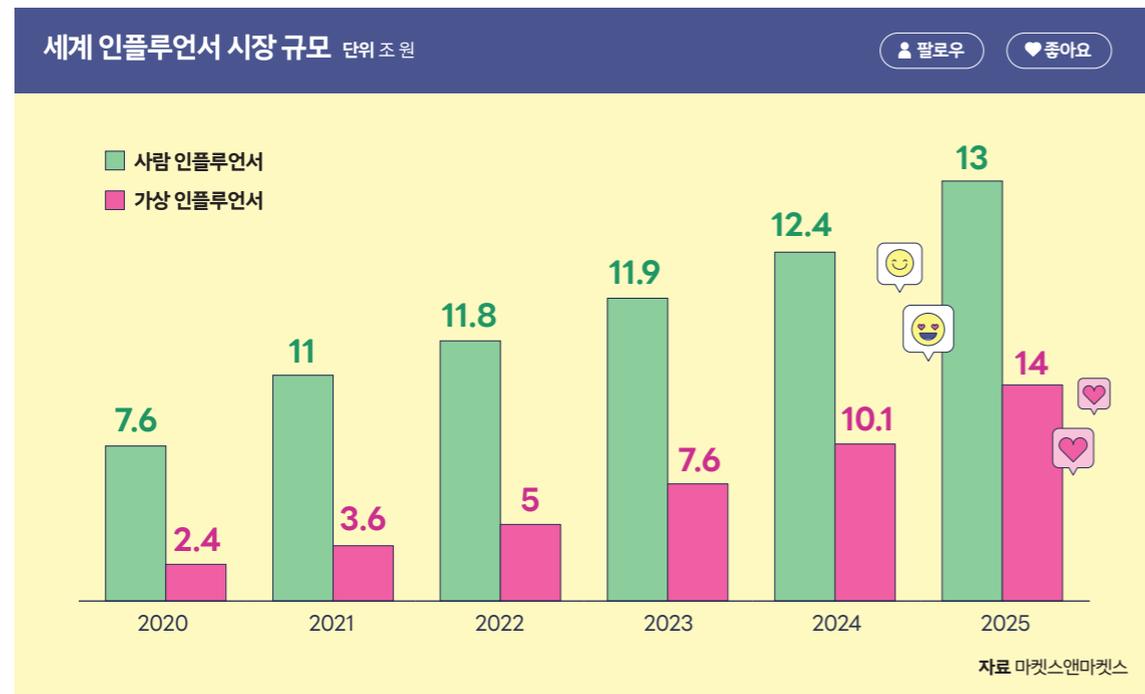
무궁무진해진 버추얼 휴먼의 활용과 리스크들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24시간 전 세계와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여러 공간에서의 동시다발적인 활동도 가능하다. 셀럽이 됐을 때 특히 중요해지는 사생활 리스크도 전혀 없다. 또한 특정 마케팅에 있어서 데이터에 근거한 최적화된 접근방식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현재 버추얼 휴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추동하고 있다. 글로벌 버추얼 인플루언서 시장은 2024년 기준 60억6,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458억8,000만 달러 규모로 급증할 것이라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은 다양한 브랜드가 독특한 디지털 페르소나를 활용해 광범위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려는 전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디지털 셀럽의 개념이라면 버추얼 아바타는 이것이 일상 속으로 들어온 개념이다. 분신이라는 의미의 아바타가 뜻하는 것처럼 이제 이 버추얼 기술은 가상 세계에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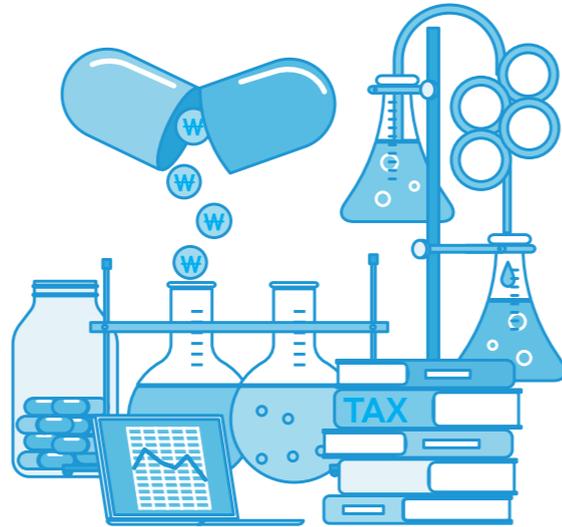
가 저마다의 아바타를 갖는 시대를 예고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맞춤형 메타버스에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버추얼 아바타로 물건을 사고 공연을 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구찌(Gucci)는 2021년 로블록스 게이밍 플랫폼에 '구찌 버추얼 가든(Gucci Virtual Garden)'을 론칭한 바 있다. 이 가상공간에서 사용자들은 개인의 아바타를 통해 독점적인 디지털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 캠페인은 출시 후 2주 만에 1,9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Z세대에게 혁신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버추얼 아바타 시장은 2030년에 2,700억 달러에 이르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의 버추얼 휴먼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고객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의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상시 대화할 수 있는 고객 접점 인터페이스'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새로운 가상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도전과 윤리적 딜레마도 적지 않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생겨나는 신뢰성의 문제나 진짜 같은 가짜가 만들어내는 과몰입의 문제, 나아가 AI 기반의 버추얼 휴먼이 창작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저작권 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새로운 기술은 늘 그만큼의 리스크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리스크들을 관리해 가면서 이미 도래한 버추얼 기술들로 바뀌고 있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버추얼 휴먼이 가진 파괴력과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새로운 마케팅의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고객 경험 창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세무 리스크 없이 R&D 혜택 극대화하기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의 설립을 원하는 기업이 많다. 경비 처리는 물론이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리 여러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R&D 세제 혜택, 회계 처리 등에 대해 알아보자.

연구소를 설립한다면 '이것'만은 검토하자

1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세제지원

구분	주요 내용	감면 내용	근거
취득세	연구소 신축·증축·개축 시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감면	최대 35~60% 감면	지특법 제46조
재산세	연구소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감면	최대 35~50% 감면	
소득세/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25% 등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2 기업 부설 연구소의 설립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연구개발 활동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별도의 독립된 공간과 연구 인력 등이 필요하다.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에 관한 정보는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홈페이지(www.rnd.or.kr) 등을 참조하자. 필요시 유선 상담 지원도 가능하다.

3 설립 후 연구소 지출의 자산과 비용 구분

연구 장비, 시설 등 장기 사용이 예상되는 자산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감가상각한다. 인건비, 재료비, 외주 용역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지출 목적과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자. 체계적인 분류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세무 검증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Q&A로 풀어보는 R&D 세제 활용의 핵심

Q1. 개발비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어야 하며, 개발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판단은 세무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회사가 결정한다.

Q2.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상각 기간은 얼마나 되며 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상각 기간은 통상 20년 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기준(무신고 시 5년)으로 정하며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원칙이다.

Q3. 연구개발비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요건이 궁금해요.

연구 단계 지출로 미래 효익이 불확실해 기초연구, 실험, 시제품 제작 전 단계의 비용은 전액 당기 비용(연구개발비)으로 처리한다. 즉 손익계산서에 바로 비용으로 반영된다. 이는 일반적 회계 기준이다.

Q4. K 기업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등) 대상에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인정받아야 한다. 참고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인원, 비용 집계 등 근거자료 보관은 필수다.

Q5.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아요. 안전하게 받으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 되나요?

이때에는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이 제도에 따라 신청 후 결과 통지를 받은 대로 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만약 향후 통지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Tip!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조건과 절차

구분	내용	비고
등록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TEC) 등	기업 부설 연구소 등록 담당
주요 목적	연구개발(R&D) 활동	기술 개발, 신제품·신기술 연구 등
공간 요건*	독립된 연구 공간	사무실과 분리된 R&D 전용 공간
인력 요건**	전담 연구 인력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원 배치 필요(소기업 3명 등)
설비 요건	연구 장비·시설	연구 목적에 맞는 장비·기구 갖추
등록 절차	신청서 제출→서류 심사→현장 실사	승인 후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서 발급
세제 혜택 예시	R&D 세액공제, 감면 등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 연구소는 독립된 전용 연구 공간(별도 구획)을 확보해야 한다. 사무실과 분리된 연구 및 실험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연구원이 최소 3인(소기업)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연구 인력은 정규직으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참고로 연구 인력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도 포함하나 실제 근무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김성태 은행장은 개소식에서 “앞으로도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 많은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 전국 창업 지원 허브 강화

여섯 번째 정규센터로 창업 네트워크 완성
13개 혁신 스타트업 선발해 금융·비금융 지원

IBK기업은행이 여섯 번째 정규센터인 ‘IBK창공 대구’를 공식 개소하며 전국 단위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금융위원회와 대구시 관계자, 창공 대구 1기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센터는 AI, 바이오·헬스, 제조·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13개 스타트업에 투·융자 연계, 맞춤 컨설팅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구센터는 지역 산업 구조와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을 연계해 실질적 성장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지방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계



획이다.

또한 센터는 전국 창공 프로그램 및 글로벌 데스크와의 협업을 강화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실증사업 연계를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전국 6개 정규센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약 200개 기업을 육성하며 창업 성장 플랫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기반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내 혁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약물전달기기 혁신을 이끄는 정밀기술 기반 의료기기 전문기업

현장간담회 참석기업 (주)메디커넥터

(주)메디커넥터는 정밀 금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제조 역량을 앞세워 약물전달용 의료기기(DDS)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 의료기기 개발부터 설계, 금형 제작, 클린룸 사출·조립·포장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의료기기 전문 제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사전충진형 프리필드 시린지, 약물전달장치, 의료기기 ODM·OEM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제약사와의 장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파트너로 평가받는다.

(주)메디커넥터는 글로벌 수준의 클린룸 기반 생산 인프라와 엄격한 품질 시스템 구축을 강점으로 한다. 모든 제조 공정을 Class 10,000급 클린룸에서 수행하며 ISO13485 및 GMP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와 동일한 밸리데이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체가 생산 인프라 대비 인증·검증 영역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주)메디커넥터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는 제조 환경과 품질 경쟁력을 통해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메디커넥터는 금형·사출 기술뿐 아니라 자체 개발한 실리콘 윤활코팅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약물전달장치의 플러저 작동성을 개선해 사용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공정으로 코팅 농도와 점도, 건조 조건 등을 최적화해 제품 간 편차를 최소화한 기술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밀 제조 역량은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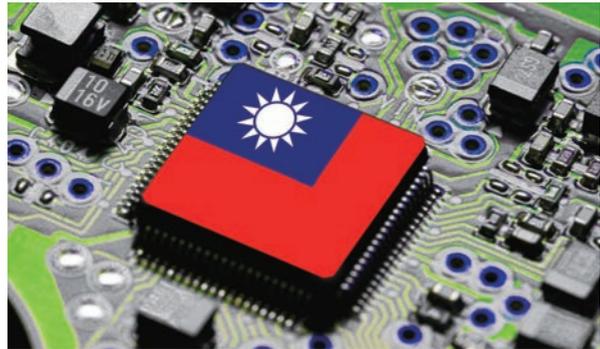
안과용 의료기기, 미세사출 기반 의료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주)메디커넥터는 국내 주요 제약사와 협력해 다양한 약물전달장치를 개발·양산하고 있다. 한림제약과는 안구 전방·후방·맥락막상 등에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안구이식제 기기를 국내 최초로 공동개발하며 기술력을 입증했고 최근 전략적 투자도 유치했다. 또한 삼양바이오팜과는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4등급 의료기기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향한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경북청년우수기업,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벤처기업 인증, IBK창공 대구 1기 선정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주)메디커넥터는 안과 분야 특화 기술을 중심으로 정밀의료기기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실리콘 마이크로니들 기반 기술, 고부가가치 약물전달기기 상용화 등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의 전문 파트너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이사 유정현
주요 사업 약물전달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설립일 2019년 11월 7일
본사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4길 141-37
홈페이지 www.mediconector.co.kr

지금 세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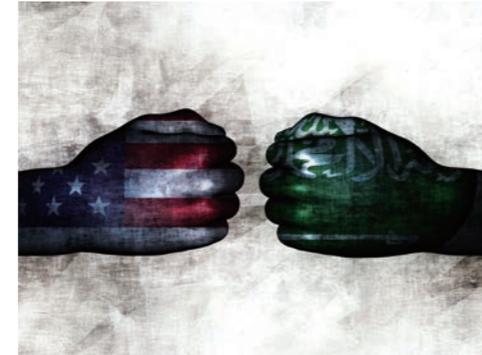


@clipartkorea

대만, 전략기술 수출 규제 대폭 강화



대만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수출허가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3D프린터 장비 ▲첨단 반도체 장비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총 18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제조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ITA)로부터 사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단순한 수출 금지가 아니라 무기 확산 등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clipartkorea

사우디 1조 달러 대미 투자... F-35 맞교환 논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7년 만의 방미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과 F-35 전투기 제공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했고 빈살만은 미국을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우디의 언론인 카슈끄지 암살 사건에 대한 미국 내 비판도 이어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 첨단기술 도시 개발 규정 도입



@clipartkorea

베트남 정부가 첨단기술법 개정 초안을 통해 첨단기술 도시 개발 규정을 새로 도입하며 관련 전략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까지 기술 활용 및 응용 활동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이번 초안에 스마트테크파크와 테스트시티 조성 규정을 추가했다며 첨단 기술 개발 체계를 고도화하고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조치라고 설명했다.



417억 달러

올해 10월 인도의 무역적자는 417억 달러(약 61조 원)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축제 시즌에 따른 소비자들의 금 구매 증가로 금 수입이 147억 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약 200% 급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상무부는 10월 소비자들이 약 110억 달러 상당의 금을 구매했다고 밝혔으며 무역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치(28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해 작년 11월 기록(378억 달러)도 넘어서다.



9만 달러

인공지능(AI) 열풍이 다소 식어가며 아시아 주요 지수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9만 달러가 붕괴됐으며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 역시 산업주 중심으로 낙폭을 키우는 등 전반적 조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뉴욕 시장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시 관련 종목과 반도체 섹터 역시 투자심리가 식으며 조정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 확산... 日 관광업 직격탄



@clipartkorea

중·일 관계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 내 일본 여행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자 항공권 수입만 장이 하루 만에 취소됐고 단체 관광 상품도 대거 중단되는 등 여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일본 관광업계는 직격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전체 관광 지출의 28%를 차지한다.



2034년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여러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매체는 최근 현대차가 자동차·전기차·차량 부품 등을 아우르는 상표를 신청해 등록을 마쳤으며 이들 권리가 2034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향후 러시아 내에서 생산·판매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현대차의 러시아 법인 '현대 모터 CIS'는 지난해 기준 매출 650억 루블(약 1조700억 원), 순이익 27억 루블(약 49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126만 mt

EU가 역외로 유출되는 폐알루미늄을 통제해 자원 확보와 산업 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봄부터 수출 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유럽알루미늄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EU의 폐알루미늄 수출량은 역대 최대인 126만mt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유럽산 폐알루미늄의 미국 유입이 늘자 아시아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EU는 이미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해왔으며 이번 제한 조치는 준비된 대응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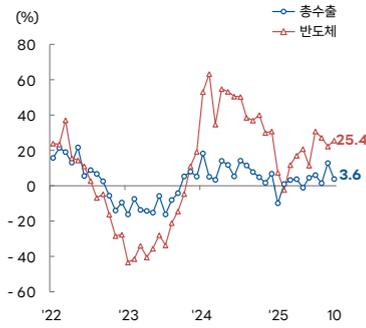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Korea

Exchange Rate

Small Business Trends

수출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 5개월 연속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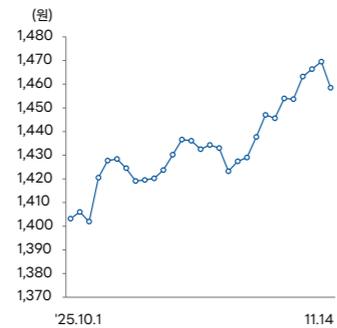
10월 수출(596억 달러)은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역대 10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수출(157억 달러)이 8개월 연속 증가했고 선박 수출(47억 달러) 역시 증가세를 지속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6.2%)과 중국(-5.1%) 등 지역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중남미(99.0%)와 CIS(34.4%)의 수출이 큰 폭 증가했다.

2025년 3분기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

3분기 산업활동은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매판매와 설비·건설투자도 모두 증가 전환했다. 향후 국내 경기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3분기 산업활동(전년 동기 대비, %): (제조업 생산) 1.3, (서비스업 생산) 0.8, (소매판매) 1.5, (설비투자) 5.8, (건설투자) 2.4

달러/원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급등하며 4월 이후 최고점인 1,469.5원 기록(11월 14일) (2025년 10월 1일 1,403.2원 → 11월 14일 1,469.5원 → 11월 17일 1,458.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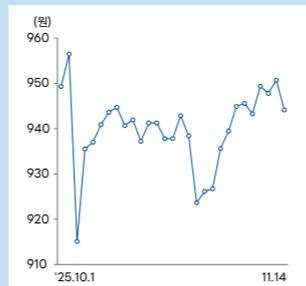
엔화 가치 급락, 대미투자펀드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환율은 美 섀터다운 장기화, AI버블 경계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수급 측면에서도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는 계속된 반면 11월 들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가 크게 늘면서 11월 14일 장중 1,470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개입의지 표명 등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1,400원 중반대에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406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5개사)의 2025년 4분기 말 달러/원 환율 전망은 평균 1,406원(최고 1,430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1,400원' 이상으로 전망한 IB가 5개사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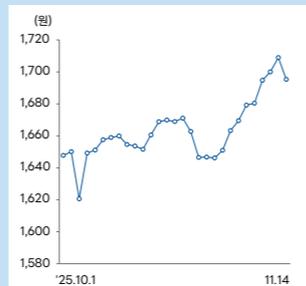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5.10.1~11.14.

원/100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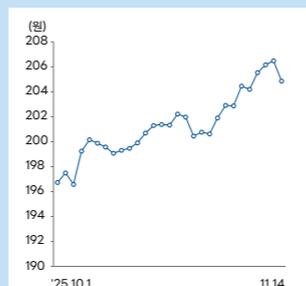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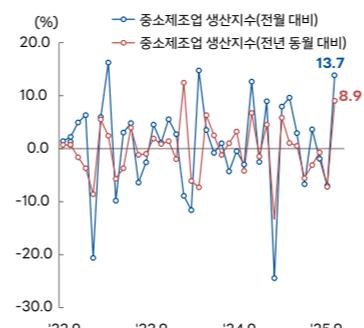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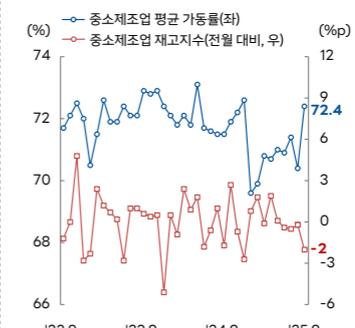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생산, 전월 대비 증가

2025년 9월 중 생산은 전월 대비 13.7%, 전년 동월 대비로는 8.9% 증가한 104.3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19.6%), 기타운송장비(12.6%), 석유정제(4.5%) 등에서 증가했으며 자동차(-18.3%), 기계장비(-6.9%), 의약품(-8.2%)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32.5%), 자동차(10.9%), 기타운송장비(45.9%) 등에서 증가했으나 통신·방송장비(-8.8%), 기타제품(-6.2%), 가구(-3.9%)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국가데이터처

가동률, 전월 대비 증가

2025년 9월 중소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2%포인트 증가한 72.4%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소기업(5~49인)은 1.9%포인트 증가한 68.8%, 중기업(50~299인)은 2.2%포인트 증가한 76.5%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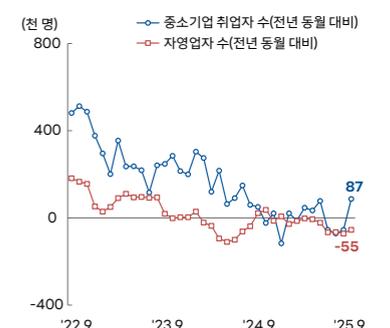
* 2023년 9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감소

2025년 9월 중소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2.0%p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11.6%), 1차금속(6.6%), 전자부품(13.7%)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3.7%), 석유정제(-6.0%), 금속가공(-4.9%)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자료 국가데이터처

취업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5년 9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7,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9만3,000명이 감소한 반면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18만 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7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25년 9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5,000명이 감소해 569만6,000명을 기록했다.

탄력근무제 도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수도권에서 약 4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인사팀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몇 년간 납기 단축과 프로젝트 단위 수주 증가로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인력 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도를 설계하려니 고민이 많습니다. 현장 근로자는 생산량에 따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고, 사무직은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팀장급에서는 '월 단위 탄력근무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직원은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나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대표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2주 단위', '3개월 단위' 등 여러 유형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중소기업 현실에 더 적합할까요?

탄력근무제가 제도상 가능하더라도 근로 감독 시 오히려 문제로 지적받을까 걱정도 큼니다. 실무적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입 요건과 주의 사항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문 노무사가
채택된 사연을 상담해드립니다.
✉️ dnc_sj05@naver.com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올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New message

— 17 ×

From 윤형석 노무사
Subject Re: 노무사님, 탄력근무제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보내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있어 탄력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직무에 대한 관리(직무분석-직무평가-직무설계 등) 및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진단 등 통합적 기초 노무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탄력근무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시간제의 하나로, 사용자의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단위 기간(2주~6개월) 전체에 걸쳐 평균 주 40시간 이내로 맞춰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적 근로시간 내로 맞출 때, 그 단위 기간을 2주 단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각각 도입 요건 및 근로시간의 제한은 달라집니다.

나아가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소기업 현실에 더 적합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직무에 대한 관리(직무분석-직무평가-직무설계 등) 및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진단 등 통합적 기초 노무 진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화 관점에서 1주 최대 근무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활용하여 비수기·성수기 조절, 계절성 수요에 대한 대응 가능 등 중장기적 인력운영에 유리하다는 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보다 명확해지는 등 도입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실제 제도 도입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공정 특성·근로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

Reply Forward Cancel

글. 한명훈

영화 <탑건: 매버릭>

하늘을 나는 리더의 길 :최고를 향해 도약하다



©씨네21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한 거야.”

- 매버릭

개봉 2022. 6. 22.
장르 액션
감독 조셉 코신스키
출연 톰 크루즈, 마일즈 텔러, 제니퍼 코넬리, 존 햄, 에드 해리스

영화 <탑건: 매버릭>은 단순히 전투기 액션의 스펙터클을 넘어 리더십의 본질을 묻는 작품이다. 초음속의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조종하는 리더의 감각과 결단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리더의 판단, 용기, 사람을 이끄는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Profile. 한명훈

- 아테네학당 대표
- <연택트 리더십 상영관> 등

하늘 위의 리더십: 속도보다 방향이다

<탑건: 매버릭>에서 톰 크루즈가 연기한 매버릭은 여전히 시대에 맞서는 인물이다. 젊은 조종사들이 최신 기술과 드론으로 대체되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인간의 감각과 판단이 지닌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매버릭이 젊은 조종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매뉴얼을 넘어서는 법이다. 규정된 비행 경로를 충실히 따르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직관을 믿고 팀을 신뢰하며 때로는 규칙을 깨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업의 리더도 마찬가지다. 변화의 하늘 위에서 리더는 단지 정해진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조종사가 돼서는 안 된다. 새로운 항로를 개

척하는 파일럿이 돼야 한다. 시장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 너머의 기회를 읽어내야 한다. 경쟁사가 가는 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 매버릭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술은 도구일 뿐 결국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다. 마찬가지로 경영에서도 AI와 데이터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리더십의 본질은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두가 속도에 집착할 때 진정한 리더는 “우리가 왜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묻는다. 기술로 효율을 극대화할 때 리더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이런 질문을 반복하는 리더만이 변동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팀을 더 큰 비상으로 이끈다.

도약의 순간: 두려움을 넘어 비상하라

<탑건: 매버릭>의 절정은 단순한 공중 전투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인간의 비행이다. 매버릭은 한계 고도와 속도의 경계에서 젊은 조종사들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가르친다. 그는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다. 계기판의 수치가 위험 구간에 들어서자 젊은 조종사들은 긴장하지만 매버릭은 오히려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는 두려움을 다스린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유의 표정이다. 리더십의 도약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혁신은 언제나 두려움의 경계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시도는 실패의 가능성을 동반하지만 리더는 그 두려움을 통과하는 존재다. 조직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거나 AI와 같은 낯선 기술을 받아들일 때 구성원들은 불안과 혼란을 느낀다. 그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리더의 확신과 용기다.

리더가 먼저 조종간을 잡고 하늘로 이륙할 때 그 비행은 곧 조직 전체의 도약이 된다.

리더의 하늘: 미래를 위한 도약

기업의 미래는 단순한 성과의 그래프가 아니라 리더의 비전이 그리는 비행 궤적이다. 변화의 하늘은 언제나 거칠고 상승 기류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매버릭처럼 확신을 가진 리더는 난기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바람을 읽고 팀을 신뢰하며 목표를 향해 비상한다. 오늘의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매뉴얼이 아니라 즉흥적 통찰력과 결단의 용기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조직의 비행을 이끄는 것은 결국 리더의 심장이다. 리더는 새로운 시대의 하늘 위에서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지금 나는 안전한 고도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높이를 향해 도약하고 있는가?”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신념과 결단이다. AI가 기업의 시스템을 자동화하더라도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리더의 통찰력이다. 리더여, 당신은 어떤 조종사인가? 조직이라는 비행기의 속도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불확실한 하늘 속에서도 직감과 신념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조종사인가? 하늘은 늘 열려 있다. 그러나 그 하늘을 나는 것은 기술이 아닌 용기 있는 리더의 날개다. 미래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안으로 뛰어든 용기가 진짜 비상을 만든다. 작은 선택 하나가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아주 짧은 순간의 결심이 긴 항로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이제, 당신의 순서다. 조종간을 잡고 도약하라. 🛩️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운명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있다. 화투나 카드를 칠 때 많이 쓰이는 격언으로 운이 7, 기술이 3이라는 뜻이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개인의 노력보다 운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다는 뜻이다. 피나는 노력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운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있다. 또한 타고난 운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운도 많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 돈과 명예, 좋은 유전자까지 물려받았다면 초년운이 좋다고 한다. 소위 금수저라고 불린다. 그러나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자수성가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중년운이라고 한다. 또한 인생이 거의 끝날 때쯤 기대하지 않았지만 얻게 되는 행운을 말년운이라고 한다. 마치 야구 9회 말에 만루홈런을 치는 것처럼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이생망)라고 말하는 심리에는 타고날 때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후회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고 그냥 로또처럼 이미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는 일은 어리석다.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세 번째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노력과 운, 우연이 합쳐져 만들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30은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의 영역 70은 능력 밖인 운에 맡겨야 한다. 노력했을 때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면 행운에 감사하며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불운을 탓해야 한다.

노력과 결과를 분리하는 것이 운과 운명을 대하는 현명한 태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불가능의 영역도 인정해야 한다. 행운은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며 불운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주사위 놀이에 비유한다면 원하는 패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주사위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한번 떨어진 주사위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좋은 패가 나올 때까지 계속 주사위를 던지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 원하는 패를 쥐면서 성공을 맛보게 된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자수성가의 꿈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늘 시작보다 끝마무리가 중요하듯 인생의 행복도 말년에 찾아오는 복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많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아모르 파티(Amor Fati)를 설파한 니체는 여러 가지 노력과 운이 엮여서 이뤄진 삶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나쁜 것은 빼는 좁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크게 보면 실패와 고통을 가져온 불운도 나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중요한 의미다.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사람은 힘들 때도 웃을 줄 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처럼 긍정적인 생각에 행운이 따라주면 누구나 말년에 인생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

@clipartkorea

Profile. 강용수

-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
-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 <니체 작품의 재구성> 등

글. 안병택

굳은 몸 풀고 하루 준비하는 모닝 워업

밤새 굳은 목·어깨·허리·고관절을 10분 루틴으로 풀어 혈액순환을 돕고 하루 컨디션과 집중도를 높인다. 침대 옆에서 바로 따라 하는 경추·흉추·고관절·종아리 중심 스트레칭으로 아침 피곤함을 해소하고 일과 중 결림·요통을 예방한다.



재활 현장에서 환자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냐다. 특히 허리디스크, 협착증 등 허리 질환자가 자주 묻는다. 누워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없을까 물어본다. 척추는 아침에 추간판이 가장 높은 상태다. 잠을 잘 때 별다른 부하가 없어서 디스크 내 수핵은 상대적으로 내부 압력이 낮아진다. 낮은 압력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로 섬유륜과 수핵 내로 수분을 끌어당긴다. 자는 동안 수분을 끌어당기는 추간판은 경미하게 팽창되어 있다. 그래서 일어나면 척추가 뻣뻣한 상태가 된다. 근육과 인대도 밤새 움직이지 않아 몸이 경직되어 있다. 앞으로 벌떡 일어나거나 동작을 크게 하면 아침에 빼앗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잠자고 일어나면 바로 움직이면 안 되고, 몸을 잘 풀어야 한다.

먼저, 스트레칭을 바로 하기보다 호흡 운동을 하는 게 좋다. 들숨과 날숨이 1:2 비율로 일어나게 한다.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실 때 3초, 내릴 때는 6초 한다. 들숨보다 날숨이 길어지면 자율신경계 중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가만히 누워서 3분간 날숨을 강조한 호흡 운동을 먼저 해보자. 몸이 이완됨을 느낄 수 있다.

그다음 관절을 서서히 움직여 본다. 누워서 발

목이 원을 그리듯 천천히 1분 동안 돌려본다. 그다음 발목을 안팎으로 회전하며 1분 동안 고관절을 풀어준다. 무릎을 세워 구부린 후 모은 다음, 좌우로 2분간 움직인다. 이때 좌우로 움직일 때 바깥쪽 허벅지가 바닥에 닿게 크게 움직이면 안 된다. 자칫 인대나 근육이 빠듯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고 점점 범위를 넓히면 골반과 몸통이 회전되며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 수 있다. 다음 손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간 돌린다. 손을 안팎으로 회전해 어깨관절을 1분 동안 이완한다. 마지막으로 목은 턱을 안쪽으로 살짝 당긴다. 이때 과도하게 턱을 당기면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턱을 천천히 가볍게 당기고 놓으며, 1분 동안 반복한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10분 움직이면 몸이 다소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활동할 수 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과도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피하는 게 좋고, 항상 몸은 잘 풀고 움직여야 한다. 

Profile. 안병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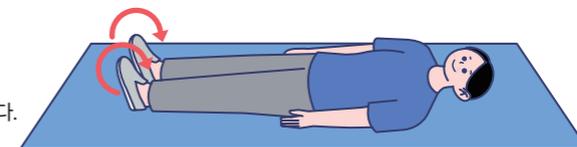
- 바디안 대표
-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하루 10분 저속노화 운동법> <4050 생활습관 리셋> 등

기상 직후 몸을 깨우는 모닝 스트레칭

1 발목 회전 스트레칭

발목 관절 유연성 향상을 위한 방법이다.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10회 회전한다. 반대로 안쪽으로도 천천히 10회 회전한다. 1분 동안 반복하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춘다.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10회 회전한다.



2 무릎 세워 좌우 회전 스트레칭

골반과 척추 유연성 증가를 위한 방법이다. 무릎을 세워 구부린 후 양 무릎, 발목을 모은다. 무릎을 천천히 좌우로 회전한다. 처음에는 작게 움직이고 점점 범위를 넓힌다. 2분간 천천히 반복하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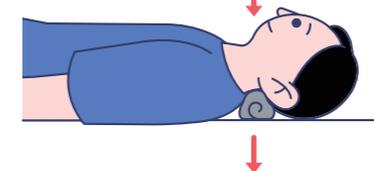
무릎을 세워 구부린 후 양 무릎, 발목을 모은다. 무릎을 천천히 좌우로 회전한다.



3 목 회전 스트레칭

턱을 당겨 목 전만을 만들고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이다. 턱을 지면 방향으로 살짝 당긴 후 3초간 유지한다. 이때 턱은 살짝만 가볍게 당겨야 한다. 1분간 천천히 반복하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춘다.

턱을 지면 방향으로 살짝 당긴 후 3초간 유지한다. 이때 턱은 살짝만 가볍게 당겨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통 극복 컨설팅

중소기업은 성장 과정(창업기→성장기→성숙기)에서 외형 성장에 반해 세무 인력관리 등 내부 역량의 불균형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성장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이러한 성장통을 사전에 진단하고 필요한 컨설팅을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도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외형의 급격한 성장으로 향후 성장통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창업기 → 성장기

가망
고객
(예시)

- 1 창업 5년 이내
- 2 상시 근로자(종업원) 수 10명 이상
- 3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증가
- 4 최근 2년 연속 차입금 증가

성장기 → 성숙기

- 1 창업 5년~30년 이내
- 2 상시 근로자(종업원) 수 30명 이상
- 3 최근 2년 연속 유형자산 증가
- 4 최근 2년 연속 차입금 감소

주요 내용

1 기업 전반에 대한 통합 컨설팅 패키지 제공

세무·회계, 경영, ESG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이 One-Team 체계로 기업의 문제를 동시에 다각도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종합 솔루션을 제시

2 성장통 해소를 위한 단계별 주요 점검 포인트

창업기
↓
성장기

세무 혜택 챙김 컨설팅

- Ⓞ 사업 초기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 점검
- Ⓞ 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등 해결방안 제시

노동 리스크 점검 컨설팅

- Ⓞ 노동규제·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비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
-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사규 검토 및 개정 등

ESG 마인드셋 프로그램

- Ⓞ 사업 초기 단계부터 ESG 인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ESG 경영 기본개념 교육 실시

성장기
↓
성숙기

기업승계 사전점검 컨설팅

- Ⓞ 기업승계·M&A 등에 대비하여 필요 요건 사전검토
- Ⓞ 요건 미충족 시, 지분관리 방안 등 기업승계 준비 로드맵 제공

조직 Re-Boot 컨설팅

- Ⓞ 조직운영 현황 진단 및 전략·목표·자원을 고려한 조직 재설계
- Ⓞ 조직문화 유형 진단 및 공감대 향상 방안 제시 등

ESG 규제 사전진단 컨설팅

- Ⓞ 성숙 단계 진입 전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 대비하여 기업 맞춤형 규제 대응 수준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컨설팅 수행·신청 방법

수행 방법 컨설턴트가 기업에 상주하며 컨설팅 수행(1~3주 이내)

신청 방법 관리 영업점을 통한 신청

